

### 대구 지방경찰청 불교회 19일 창립법회 봉행

대구지역 경찰공무원 불자들이 연합회 창립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 불자회는 19일 오후 3시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불교회' 창립법회를 개최한다.

대구지방경찰청 불교회는 향우, 합동법회, 합동성지순례 등을 통해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는 한편 지역 경찰청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대구지방경찰청 불교회 창립법회는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대구 지방경찰청 경승실장 원각스님을 비롯, 각 경찰서 경승스님, 경찰청장 등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 예정이다. 1부 법요식에 이어 2부 경찰청 불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지역 경찰청 불자들의 신행 및 포교 방안 등을 논의한다. 대구서부경찰서 불자회 김택수 회장은 "이번 대구 지방경찰청 불교회 창립을 통해 전국 경찰청 불교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지역 경찰청 불교회인 '대구경찰청 불교회' 창립식도 함께 열렸다. 박원규 기자

###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방학중 불교문화 배우기

부산 경남지역 사찰에서 초·중·고 교사들을 위한 교원특수분야 직무연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

삼광사주지 도원가 교원들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삼광문화연수원(051-808-7111)을 개원하고 29일-8월 2일 5일간 한국 전통문화의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의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또한 부산우곡선원도 우곡선원 심상개발교육원(051-740-6288)을 열고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명상, 참선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051-513-4306)는 8월4일-14일까지 우리문화길라잡이 전문지도자 과정을, 통도사성보박물관(055-382-1001)은 8월4일-8월 8일까지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연수를 제공한다.

이들 대부분의 연수기관이 연수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수 횟수를 늘리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인 정도로 교원들의 참선, 명상, 불교문화 등 불교문화와 전통 문화에 반응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천미희 기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남성합창단이 24일 공연을 앞두고 매주 2회 연습을 하고 있다.

## 굵은 목소리로 화음이 이루는 특별 무대

###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남성합창단

### 24일 부산문화회관서 지역 첫 단독 공연

"일체는 한마음이 근원 되어 생겼어라- 부처증생 같이 있고 천지 만물 둘 아나네-"

8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해도) 남성합창단이 연습에 한창이다. 노래 가사부터 법문을 떠올리게 하는 선법가를 연습중인 합창단은 24일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에서 첫 단독 공연을 앞두고 있어 일주일에 한번이던 연습을 두 번으로 늘렸다. 바쁜 일상을 쫓아가 연습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단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공연을 준비중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남성합창단 활성화와 부산지원 불사 원안 회향 등의 서원을 노래에 담아 부르는 특별한 무대에서 연습에 임하는 마음이 각별하다. 96년 창단 이후 꾸준히 노래를 통한 공부를 이어온 한마음선원 남성합창단은 이번 단독 공연을 합창 실력은 물론 스스로의 공부를 점검하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이번 공연의 가장 큰 부담은 부산

유일의 사찰 소속 남성합창단에 갖는 주위의 관심. 단독으로 갖는 발표회는 처음이어서 준비에 대한 부담도 많고 설레임도 크다.

1, 2부로 나눠 고미려씨의 지휘와 김연주씨의 반주로 진행될 이번 무대에서 30여명의 합창 단원들은 '세 번 죽어야 나를 보리라' '입의 소식' 등 선법가 10여 곡과 '아이들이 그리는 세상' '울산아가씨' '내가 만일' 등 민요, 민요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선보인다. 이날 공연에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어머니합창단, 부산지원 청년회의 찬조공연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테너, 소프라노 등 초청가수의 공연도 펼쳐진다.

"노래를 부르며 나의 내면을 정화하고, 듣는 대중들에게도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합창단 활동에 거스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051)403-7077.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성년의 덕목 하나하나 새겨

### 삼광사 청소년기원제 1천500여명 참가

"거룩하신 대덕 법사님이시여! 저희 청소년들이 성년의 바른 길을 배워 익힐 수 있도록 자세히 일러 주시옵소서"

6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열린 합창한 청소년 1천 5백 여명의 엄숙한 기원이 울려 퍼졌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생까지 청소년 기원제에 동참한 청소년들은 법사와의 문답 형식으로 진행된 기원제를 통해 진정한 성년으로서 지녀할 덕목을 하나하나 새겨나갔다. 이날 열린 청소년기원제의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들이 직접 1시간 30분에 걸쳐 스스로를 위한 다짐과 발원을 낭독하면서 법회를 가진 것으로 삼광사는 기

원제를 청소년들의 성년의식으로 정례화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주지 도원 스님은 "앞으로 청소년 포교를 위해 청소년 연극, 합창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가한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기원제와 같이 청소년들의 인성 변화를 가져올 행사들을 사찰에서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원제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는 참가증이 수여됐으며 향후 삼광사는 지역별, 학년별 법회나 모임 등을 통해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삼광사 청소년기원제가 6일 지관전에서 열렸다.



대구교도소 105명 수용자들의 수계식이 8일 열렸다.

### 대구교도소 재소자 105명

### 수계법회...불자의 길 서원

으로 수계법회를 가졌다.

대구교도소 종교관 3층 법당 광명사에서 열린 이날 수계법회에 참석한 105명의 수용자들은 팔공산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전제대회 상으로 연비를 받고 5계를 지켜 참된 불자의 길을 걷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수계법회는 동화사 포교국장 진오 스님, 내원암 주지 정현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 반야심경, 참회진언 독경 순으로 진행됐다. 지성 스님은 "제라고 하는 것은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씨앗이 되는 것이다. 자성의 종자를 바로 보아 진실로 참회하여 모든 죄업을 태워 없애라"고 법문했다. 박원규 기자 bak09@buddhapia.com

## 한-몽 불교교류협의회 추진

### 대구 불교계 내달 13일 창립총회 봉행

불교국가 몽골에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한 한·몽골 불교 교류협의회(이하 교류협의회)가 창립된다.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대구 능화사 주지 삼현스님은 "8월 13일 교류협의회 창립총회와 함께 본격적인 한몽 불교교류 활동에 나서겠다"며 "내년 몽골에서 북한불교도 참가하는 동아시아 불교국가들의 '불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교류협의회 총재로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추

대하고, 2003 대구국제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하는 몽골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법회와 함께 기념마련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들도 준비된다.

교류협의회는 창립이후 몽골불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화사 성보박물관에 몽골불교전시공간 마련을 추진하고 한국과 몽골스님의 대구도 교환법회를 개최해 한국불교의 위상을 제고할 방침이다. 박원규 기자

### 문화재대관 5권 출간

### 경북, 국보보물 등 망라

경상북도 지역의 문화재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문화재대관' 출간기념식이 8일 경북 도청강

당에서 열렸다. 경상북도가 지난 96년부터 7년간의 작업 끝에 최근 발간한 '문화재대관'은 모두 5권, 3,300쪽 분량으로 경북지역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등 대부분의 문화재들이 사진, 평면도 등과 함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문화재대관은 외국인을 위해 문화재 명칭에 한자와 영문을 병기하고, 문화재 용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실어 개별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박원규 기자



경상북도가 발간한 문화재 대관 5권.

##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 안내



참선은 인생관을 바로 깨닫게 하는 최상승 법이요 철학적인 법이요 과학적인 법이다. 현대인들이 물질 문명에 현혹이 되어 날뛰고 있지만은 물질 문명으로서의 거룩한 인생을 깨달을 수 없다는 길 알아야 합니다. 사람 몸 한번 받는 인연은 허공에서 겨자씨가 떨어져서 바늘 끝에 꿰히기 보다 어려운 인연인데 인생이 자기 인생을 느끼지 못하면 어찌 자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21세기의 宇宙의 주인공은 인생이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宇宙의 조물주는 인생이아라 됩니다. 地球村의 주인공인 인생을 창조하는 大道는 오직 參禪입니다. 대중은 어리석은 迷惑에서 벗어나서 生死에 자유인이 되기를 발원하여 大發心하여 금번 보림사 보림선원 철야 용맹정진에 동참하여 철야정진으로 見性悟道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용맹정진 기간중에는 백봉 김기추거사님의 최상승 선법문을 교재로 하고 법남 60년 수행하고 계방 선지식과 탁마를 하신 보림사 목산스님께서 직접 지도하십니다.

### 아래

- 일 시 : 2003년 7월 27일(일) 오후 8시부터 2003년 8월 2일(토) 오전 7시까지
- 장 소 :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1번지) 02)914-6187
- 회 비 : 일반 8만원
- 연락처 및 문의처 : 017)332-4096 / 02)914-6187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세면도구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돈암역에서 하차 1,3,51,16,710번 정릉 청수장행 버스 승차, 산정아파트 앞 하차 (돈암역에서 약 20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목산 합장

## 지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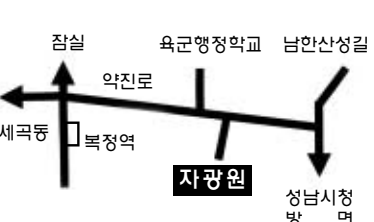


### 보살 염불원의 특징

-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지광원에서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입니다.
- > 의롭고 우물거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인생 시가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지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 위치 및 시설개요

-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 116
-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분자
- ◆ 정원 : 24명~30명 내외
- ◆ 시설개요 : 본 건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토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 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 연락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지광원

## 발송 방망이 봉법

### 발손치료법 · 발송 방망이 봉법

- ★ 당뇨 당뇨병이 확실히 낫는다.
- ★ 다이어트가 확실하게 된다..
- ★ 정력이 강해진다.(남,녀)

- ▶ 각 종류의 암이 예방된다. 간암, 폐암, 위장암 등
- ▶ 뇌졸중(풍), 치매를 예방한다.
- ▶ 변비가 낫는다. 배설이 확실히 빠진다.
- ▶ 심장병, 당뇨병 위와 장이 낫는다.
- ▶ 아픈머리, 허리, 무릎이 낫는다.
- ▶ 고혈압, 저혈압이 낫는다.
- ▶ 만성피로, 어깨 아픔(무거움)이 사라진다.
- ▶ 살이 빠진다. 젊어진다. 얼굴이 예뻐진다. 등...

※ 전 5대 조계종 종정 현 고불총림방장 서용대종사 추천 서용 師尊

※ 책, 방망이봉, 똑딱침(뽕떡침), 부황판대

충남에서 충북 영동군,읍 부용리 6번지 리치마트 1층 TEL : 043)744-2279 / H.P : 011-547-2206

- 1. 강연 : 월, 화, 수, 목 오전 10:00 ~ 11:30 [수강료 10만원]
- 2. 심장병, 당뇨병 매일 5명씩 무료치료 2시~4시까지 심장, 당뇨 확실히 낫는다.
- 3. 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40-1번지 대한금침학회 3층 전화 02)794-9373 H.P 011-547-2206